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새사람의 창조주

9/22 월요일

아침의 누림

창 1:25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제 종류대로, 가축을 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엡 2: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행 2:1-6 (4-5)

- 1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었는데,
- 2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 3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 4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갖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5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 6 이러한 소리가 나자, 무리가 몰려왔으며, 각 사람은 자신들의 지역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행 10:11-16 (15)

- 11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와 네 귀통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 12 그 안에는 땅의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었다.
- 13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14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15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즉시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사람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 가운데 가장 높은 생명이다. ... 첫 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롬 5:14, 고전 15:45, 47, 시 8:4-8, 히 2:6-9),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중심이시며(골 1:16-17), 모든 창조물(15 절)과 모든 사람(고전 11:3)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시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며(히 1:3, 고후 4:4, 골 1:15),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이시다(시 8:6-8, 마 28:18).(창 1:26 각주 3)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신 의도는 (1)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고 (2) 사탄에게 강탈당한 땅을 회복하며 (3)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다(마 6:10, 13 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첫 사람(고전 15:45 상)이며 옛사람(롬 6:6)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사람(고전 15:47 하)이시며 새사람(엡 2:15)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새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다(엡 1:22-23, 고전 12:12, 골 3:10-11). 하나님의 의도는 이기는 믿는 이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빌 1:19-26), 장차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계 2:26-27, 20:4, 6).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지니고서(계 4:3 상, 21:11, 18 상)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사용하여 온 우주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영원토록 유지할 것이다(계 21:24, 22:5). (창 1:26 각주 6)

오늘의 읽을 말씀

창조와 사람의 타락 후에 이 놀라운 신 분께서 내려오셨다. 이분은 육체가 되신 분이셨고, 이 땅에서 인성을 입고 생활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다. 그분께서 내려오신 것은 모든 경이로운 일 가운데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와 같이 놀라운 신 분께서 이처럼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산출되었다.

산출된 이 교회는 단지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포함한다. 사도행전 2 장 9 절부터 11 절까지는 적어도 열다섯 종류의 지역어를 구사하는 최소 열다섯 국적의 사람들이 묘사된다. 비록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지만(5 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은 한 언어권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분열되고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산출되어야 할 때가 오자, 그들은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 회중 가운데서 교회가 산출되었다.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사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옛사람 안에서 사람은 분열되고 흩어졌지만, 새사람 안에서 사람은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된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새사람에 관한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에베소서 2 장 13 절은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말한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믿는 이들끼리도 가까워지는 것이다. 14 절은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라고 말한다. 중간에 막힌 담은 여러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이자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요인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두 백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4 장 22 절은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라고 말한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분열되고 흩어진 사람을 벗는 것이다. 새사람을 입는 것(24 절)은 함께 모인 한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24 절)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7 년, 3 권, 한 새사람, 2 장, 675-67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3

9/23 화요일

아침의 누림

엢 2:15-16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16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갈 5: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 12: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 안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 버리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새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자신의 육체 안에서가 아니었다. ... 부정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끝난 반면에, 긍정적인 것인 새사람은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발아했다. 우리는 에베소서 2 장 15 절에 있는 ‘자기 육체 안에서’와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두 어구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먼저 저는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저는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새사람의 일부로 창조되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4, 294-29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부정적인 것들을 끝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다. ... 비록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 죽음은 그분을 부활로 이끌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육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놀라우신 영이시다. 우리 옛사람은 그분의 육체 안에서 끝났지만, 놀라우신 영 안에서 우리는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우리 옛사람과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관련된 규례들이 소멸되었다. 그런 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영 안에서 우리는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게다가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또한 놀라우신 영 안에서 한 새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새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한 새사람이 창조된 범위이시며 본질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은 바로 새사람의 요소이시다. 우리는 끝난 후에 그분 안에서 새로운 본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우리 옛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도 새사람을 창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전 본질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본질이 있으며, 이 본질 안에서 한 새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써 한 새사람인 교회를 창조하셨다.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넣는 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창조였다. 옛 창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어떤 피조물 안에도 넣지 않으셨고, 심지어 사람 안에도 넣지 않으셨다. 그러나 한 새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사람 안에 일해 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과 한 실체가 되게 하셨다.

귀신들과 악한 천사들은 한 새사람이 신성한 본질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은 그들을 두렵게 한다. 이 때문에 귀신들의 세력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새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났을 뿐 아니라 이렇게 끝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맑은 생각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회장의 그룹들로 상징된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음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했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넣으셨다. 그러시고 나서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2 장 15 절에 있는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표현을 간과하지 말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새사람으로 창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새사람의 요소인 신성한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신성한 본질 안에서 그리고 신성한 본질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이 본질, 이 요소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 그 둘,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4, 295-2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4

9/24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2:10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엡 3: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롬 5: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롬 6:19, 22

19 여러분의 육체가 악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8:10, 23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사람이 창조될 때, 먼저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다음 옛사람이 십자가로 제해진 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를 우주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항목,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 되게 하셨다(롬 6:6, 고후 5:17).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나누는 규례들에 의해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었지만,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본질로 한 항목, 즉 단체적인 사람인 교회로 창조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 곧 표현—엡 1:23), 하나님의 가족 혹은 가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2:19, 21-22) 한 새사람이다. 이 한 새사람은 단체적이고 우주적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두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수가 많지만, 우주 안에 있는 한 새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집합적인 한 실체로 창조하셨다(창 1:26).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사람을 산출하실 필요가 있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안에서 모든 규례를 없애 버리시고, 그분 자신 안에서 새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성취되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36, 16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2 장 10 절에서 '결작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로서, 이것은 '잘 만들어진 것', '수공품', 또는 '시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 ...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결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 편의 시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결작품이 아니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엡 1:23),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새사람(2:15)은 결작품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결작품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엡 2:10 각주 1)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결작품인 우리는 우주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항목 곧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후 5:17). (엡 2:10 각주 2)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다. (1) 의(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롬 5:18). (2) 거룩하게 함(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다.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롬 6:19, 22)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 (3) 구속(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즉, 우리 몸의 구속(롬 8:23)이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빌 3:21). 우리의 온 존재 곧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전 1:30 각주 2)

에베소서 3 장 8 절에 계시된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서 산출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누릴 때, 그들은 그 풍성으로 조성되어 교회가 된다.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천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분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전시하시는 것이다. (엡 3:10 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36

9/25 목요일

아침의 누림

엡 2:14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골 2: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가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골 1:15-20, 28 (16-18, 28)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 왜냐하면 모든 총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특정 실행을 좋아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만일 특정 실행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실행을, 나누어지게 하고 적대감을 일으키는 규례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와 관련된 여러 규례와 같은 규례들 때문에 ... 또는 약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분열된다. ... 어떤 실행을 주장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규례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규례가 없어졌다.

규례들은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서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규례는 적대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나 부도덕한 것이나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규례를 거부하고 성도들의 실행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어떤 실행에 찬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규례들이 발붙일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해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 버리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모든 규례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골 2:14). 에베소서 2 장 15 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할레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음식 규정의 규례들과 같은 의식적(儀式的)인 계명의 율법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3, 284-28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규례들은 생활과 경배의 여러 형식이나 방식이다. ...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경배 방식을 규례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규례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 섞이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에 따른 것으로서, 그분께서 새사람, 즉 다양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합당한 교회생활을 가지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 방식에 대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어떤 규례도 갖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민족들이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생활 가운데서 바벨을 정복해야 한다. 우리의 언어가 규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체류하거나 심지어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 가능한 한 그곳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의 모국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구속받고 회복되어 그리스도와 교회생활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는 차이점들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영예의 표시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예를 모두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의 유일한 영예는 그리스도이고 진정한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지방이나 집회소만의 독특한 영예를 간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어떤 실행이든 그것이 우상숭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닌 한 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영예를 붙잡지 말기 바란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문화적인 자부심을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합당한 교회생활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새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차이점들을 고수한다면, 이 네 방면에서의 교회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을 나누어지게 하는 분열적인 차이점들로 가득하다. 이 때문에 회복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교회생활을 위해 모든 차이점이 우리의 발아래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3, 285-28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3

9/26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골 3: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엘 4:3, 22-24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골 3:12-15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 2:14-18

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15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16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18 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들에 사로잡혀,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골로새서 3 장 15 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심판을 보도록’, ‘다스리도록’,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도록’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 합당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일 가운데 판정을 내리고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 또한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27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자신의 체험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두세 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여러 편 사이의 의견 불일치나 다툼을 해결하려면 항상 중재자가 필요하다. ...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복잡하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 편의 통제 아래 있었다. 우리는 안에 아무런 갈등 없이 세상적인 오락과 유흥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격려하지만, 또 다른 편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하도록 격려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을 끝내는 내적 중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회담을 주재할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골로새서 3 장 15 절에 따르면, 이처럼 주재하는 이 곧 이러한 중재자는 그리스도의 화평이다.

언제든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서로 다른 편들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화평에 지위를 내어 주고, 새사람의 하나(oneness)라는 이 화평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가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오직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만이 ... 한 지방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와 교회들 가운데 있는 하나를 유지한다. 주님의 회복을 돌보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교회들과 회복 전체는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 아래 있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275-277 쪽, 메시지 63, 637 쪽)

에베소서 4 장 3 절은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는 규례들 때문에 생긴 모든 차이점을 십자가에서 없애 버리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몸을 위해 화평을 이루셨다.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 주며,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띠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2 장 15 절에 따르면, 분리하는 규례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시고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이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는 뜻이다. 이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 사이에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더 이상 분리가 없다. 그러나 에베소서 3 장 6 절에 어떤 유대인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 믿는 이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과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가 없다면 한 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4 장 3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의 차이점이 십자가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화평의 매는 띠는 사실상 십자가의 일이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로 갈 때마다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없음을

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6, 96-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63

9/27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कु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엡 2:19-22

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4:1-6

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2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3 장 11 절에서 ... ‘거기’라는 단어는 10 절에 있는 새사람을 가리키므로, 결국 ‘거기에는’은 ‘새사람 안에는’을 의미한다.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상태 그대로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존재할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도 전혀 없다. ...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새사람에 관한 한 우리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을 뿐, 어떤 종류이든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는 없다.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다. 그분은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그분은 새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시다. 사실상 그분께서 새사람, 곧 그분의 몸이시다(고전 12:13). 새사람 안에서 그분은 중심과 전부이시다.

골로새서 3 장 11 절에서 ‘모든 것’은 새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지체들이시며 이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 안에는 우리라는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다. 어떤 국적을 위한 여지도 없다. 새사람의 일부인 우리는 자신을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독일인이나 다른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그리스도께서 새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새사람의 일부이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이다. 새사람의 각 지체와 각 부분은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8, 268-2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로마서 15 장 6 절에 있는 ‘한입’을 고린도전서 1 장 10 절에 있는 ‘같은 것을 말하고’와 에베소서 2 장 15 절에 있는 ‘한 새사람’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로마서 15 장 6 절과 고린도전서 1 장 10 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떻게 온 교회에 오직 한입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지체들이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5 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오직 한입만 있어야 한다. ... 그 이유는 오직 한 인격만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은 입이 있었던 것은 너무도 많은 인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인격이 있을 때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을 때 많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한입과 한 인격만 있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곳에는 경찰관이 없고 우리 각 사람이 전적으로 자유롭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서 어떤 자유도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막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라고 하자. 그러나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여러분을 ‘찔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다.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이다. 여러분이 다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찔러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만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우리 모두 안에 한 인격으로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인격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인격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인격만 계신다. 우리는 새사람 안에서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하고, ... 그분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분이 되신다. ... 이것은 우리의 움직임이나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사람의 방면이다. 다른 한 방면은 몸이다. 몸으로서 우리는 움직인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생명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힘이신 그리스도께 근거한다. 더욱이 우리의 움직임은 개인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직임이 단체적이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생활할 때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다. 그리스도는 몸 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새사람 안에서는 우리의 인격이시다.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고,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입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교회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7 년, 3 권,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5 장, 446-448, 451-45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7 년, 3 권,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5, 7 장

9/28 주일

아침의 누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사 9:6-7

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전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7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분의 왕국 전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그분의 화평도 끝이 없으리니 이제부터 영원히 정의와 의로 왕국을 굳게 세우시며 불드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고전 1: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고전 12: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롬 12:4-5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롬 15:6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